

現代社會에 있어서 企業의 位置와 課題



蘇 眞 德

(서울大 經營大 教授)

1. 現代의 經濟社會

(1) 國際經濟社會

오늘날의 主要資本主義 國家들의 經濟는 基本적으로 資本主義的인 市場經濟에 속하지만, 國公有로 되어 있는 有形固定資產의 比重이나 政府支出이 차지하는 比重 등으로 보아 政府의 經濟活動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國家는 經濟成長과 物價安定을 위하여 巨視經濟的인 計劃과 統制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財政金融政策을 강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經濟計劃은 微視經濟的인 物量計劃과는 다르지만, 政府가 市場機構의 作用을 統制修正하려는 것이고, 이것을 修正資本主義 또는 混合資本主義經濟(mixed capitalist economy)라고 한다.

어떠한 經濟體制下에서도 消費財는 원칙적으로 私的所有로 되어 있지만, 生産手段(土地·工場設備·原材料 등)은 私的所有로 되거나 公的所有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經濟體制를 구분하는 基準의 하나가 된다.

生産手段이 私的所有로 되는 경우에는 私의所有者가 그 生産手段의 利用을 任意로 하며, 그 利用에 의한 收益이나 資本利得(capital gain)도 所有者에게 歸屬된다. 그러나 公的所有의 경우에는 生産手段의 利用에 의한 成果는 國家나 公共機關에 歸屬되며 이것이 個人에게 分配되는 경우에도 私的所有의 生産手段에 의한 成果와는

다르다.

生産手段을 이용하여 언제, 누가, 왜, 무엇을 얼마나 生産할 것인가를 決定하는 過程을 經營管理라고 한다면, 經營은 그 行動主體에 따라 公的經營과 私的經營으로 구분될 수 있다. 自由私企業의 經濟體制를 자랑하고 있는 美國도 多目的의 綜合開發을 目標로 하는 TVA를 위시하여 많은 公經營이 그 混合經濟體制 속에서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共產國家들도 過去의 自給自足의 經濟體制로부터 탈피하여 점차로 貿易의 伸長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들은 國家가 巨大한 하나의 統一된 經濟主體로서 직접 經濟活動을 하고 있지만, 資本主義國家에서는 巨視經濟的인 市場統制下에서 相對的으로 自主性이 인정된 自由私企業들이 政府의 保護와 指導를 받으면서 國際的인 市場에서 企業活動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企業의 國際化要請

國民經濟가 완전히 自給自足を 할 수 있는 狀況下에 놓여 있으면, 企業의 國際化란 그다지 중요한 問題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自給自足體制(autarky)를 유지하면서 發展을 도모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近代의 經濟發展의 特徵 중의 하나는 발전과정에서 國際貿易이 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增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後進國의 經濟發展에 필요한 投資過程에서는 設備나 機械를 外國으로부터 輸入해야 하고, 그 輸入을 하기 위하여는 궁극적으로 輸出을 해야

하므로 輸出增大을 위한 戰略을 세우는데 經濟政策의 重點을 두게 된다. 經濟發展의 初期段階에서는 原材料가 輸出될 것이지만, 製造業이 伸長하게 되면, 점차로 工產品輸出이 증가될 것이다. 그 나라의 產業構造가 變容됨에 따라 차츰 資本集約의인 產品이 늘어날 것이며, 資源이 不足하고 人力이 相對的으로 豊富한 나라에서는 加工品輸出의 擴大戰略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國際經濟의 環境 속에서 한 나라의 經濟政策이 推進되고, 이러한 環境 속에서 企業이 成長·發展하기 위하여 適應하는 過程을 企業의 國際化라고 한다.

이 경우에 留意해야 할 것은, 輸出額의 增大에 의하여 企業利益을 增大시키는 것보다는 外貨稼得額의 增大에다 궁극적인 目標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輸出增大가 오직 貿易收支의 逆調를 축소시키는데 그 目的이 있다면, 輸入의 減少를 하면 될 것이고, 外貨稼得이 없는 輸出伸長은 國內資源의 浪費와 國民負擔을 加重시킬 뿐이며, 실사 企業利益이 생겼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의 僞裝된 營利活動에 의한 것이며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現代企業의 社會的인 位置

오늘 地球上的의 어느 나라도 自給自足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옛날에 自由私企業體制는 經濟主體인 企業의 自由競爭에 의하여 모든 經濟問題가 自動的으로 해결되는 동시에 國民의 生活水準을 높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事情이 달라졌고, 모든 國家들은 積極的으로 經濟規模의 擴大, 國民生活水準의 向上, 安保態勢의 整備, 國際收支의 改善, 物價의 安定, 失業의 解消 등의 問題를 해결하려고 血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最近에는 食糧·油類 其他의 資源에 대한 價格波動이 생기고, 原材料의 價格騰貴로 인한 cost inflation의 現象이 나타나고 있으며, 原材料備蓄, 消費抑制, 貿易不振, 生産減縮, 失業增大, 經濟水域擴張 등의 問題가 注目을 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問題를 企業이 단독으로 해결하도록 放任할 수는 없고, 程度의 差異는 있을지라도 國家의 經濟政策이라는 巨視經濟的計劃에 順應하여 企業活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經濟社會의 環境 속에 있는 企業을 市場經濟下의 私企業이라고 하며, 이것은 官民協同으로 難局을 克服하려는 것이고 西獨에서는 新自由主義라고도 한다. 이 경우에 留意해야 할 것은, 以前의 自由私企業이 完全한 自主的인 經濟主體였던 것과는 달리 國家의 統制를 받고는 있지만, 巨視經濟的인 統制에 不過하고, 아직도 相對的으로 自主的인 企業活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現代 企業의 課題

現代企業은 巨大한 經營規模와 資本力 및 生産力을 保有하고 있는 동시에 많은 參加者들의 協同體系로서 經濟的 社會的인 生産活動을 하고 있다. 이러한 現代企業에서는 經濟的인 合理性·民主性·社會性을 동시에 발휘할 것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國家가 직접 經濟主體로서 經營活動을 하지 않으므로 國民經濟的인 福祉目標가 個別企業들의 經營活動에 의하여 達成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國民의 生活水準向上이나 幸福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國力培養이나 社會安定이 모두 現代企業에 의하여 成就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現代企業에서는 參加者들의 持續的인 目標을 企業이라는 協同體系에 의하여 達成하려고 하므로 企業體가 存續 成長해야 한다. 이 경우에 參加者(國家·出資者·從業員·顧客 등)들의 目標達成에 寄與하는 것이 되지 못하면 企業은 存立할 수 없는 것이다. 利潤追求가 필요한 것도 資本主義的 企業制度를 유지하는 경우 經營維持라는 大目的을 위한 手段인 小目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現代企業은 궁극적으로 國民의 經濟生活에 필요한 財貨나 用役의 生産 供給을 하는 社

會經濟的인 分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莫重한 任務를 遂行하고 있기 때문에 企業은 存續 發展해야 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經營規模의 擴大에 따라 參加者의 數는 막대하고 그들의 生活根據가 되는 企業의 成敗는 社會的으로 증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顧客의 欲求를 充足시키고 적정한 賃金·配當·納稅·留保利益의 蓄積 등을 유지함으로써 社會經濟的인 責任을 수행하지 못하면 企業의 存在理由는 喪失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使命感을 가진으로써 企業은 社會에 貢獻한다는 自負心이 생길 수 있고, 社會에서도 企業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尊敬과 支援을 하게 될 것이다.

(3) 企業의 經濟的活動은 資源을 合理的으로

配分 活用하는 것이므로 生産技術的으로 能率이나 生産性的 意識이 강하게 作用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人間의 協同體系인 企業은 組織內의 人間의 幸福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며, 人間性を 존중하는 民主化를 바탕으로한 經濟的合理化로 그 次元을 높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現代企業의 課題는 企業自體의 存立을 위한 營利性, 社會經濟的인 經濟性, 民主性 및 社會性を 同時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要請을 最小公倍數로 한 複合的인 目標達成을 해야하는 어려운 使命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